하나님의 임재와 내 마음의 승천

(열왕기상 8:1~21)

6.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7.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9.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내 마음의 승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내 마음의 승천'
"라스 누베스(Las Nubes)"라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베스'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구름'을 뜻하는데 정관사가 붙어서 라스 누베스입니다.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름이 라스 누베스입니다. 포도원의 이름이 구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것이 구름속의 산책이요 구름속의 활동이었을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이 구름속의 산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스 누베스가 구름인데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 구름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구름이 갖는 의미는 엄청 큽니다. 구름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구름 위 성층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비유적인 사물로서 하나님 말씀의 재료로 쓰입니다.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음을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우리는 그 구름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기구들의 제작을 마친 뒤에 성전을 봉헌하는 이

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 성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에 고리를 만들어 어깨에 메고 지성소로 옮기고, 하늘의 천사들을 형상화한 두 그룹 아래에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일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자 갑자기 '지성소와 성소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오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지만 지어난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고인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이 넘도록 예수를 믿었지만 이렇게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광경을 본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만 그 경험을 명확하게 체험해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짓고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가져다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전의 모습은 우리 마음의 모습을 겉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안에 들여놓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나에게는 임재의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름을 소재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법궤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물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고 존재를 가리키고 존재와 연결된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구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이 땅과는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름이 땅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도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이 구름이 항상 빽빽하게 임한다는 표현을 쓸 때의 의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곳에는 햇살만 가득한 밝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활주로로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산에 가야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애인이 있는 부산이 통째로 내게로 온 것입니다. 내가 애인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인이 가있는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내게로 온 것입니다. 이럴 때 분명한 것은

부산이 다가와서 서울에 인접하고 있어도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산에 올라타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인접하도록 왔지만 애인을 만나려면 미국을 올라타야 합니다. 이처럼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에서 떠돌이 초콜릿 장수였던 고아 출신의 주인공이 빅토리아라는 여자에게 이끌려서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포도원에서 멕시코의 전통적인 귀족집안으로서 미국의 나파벨리로 이주한 유서 깊은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야 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승천과 맞물려 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려는 승천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 마음의 모양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구름 위의 세계로 올라가야 함을 뜻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전이고 성전의 모습이 갖추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름 위의 세계에는 부모 남편 아내 사업 직장 승진 결혼 부흥 돈 나라 등이 없고 근본적으로 육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위로 승천하는 마음의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고백이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삼위일체의 교통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룹으로 불리는 천사들이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다윗 사무엘 요나단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 등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빽빽한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변하셨는데 구름 위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산 아래에서 관심 가졌던 것들을 다 잊었습니다. 돈도 없고 벼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독립해야 되는 식민치하에 있는 조국도 없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승천해서 가야 될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위로 올라가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은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마음이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승천의 마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가까이 다

가오는 자들은 다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얘기를 많이 하고 임마누엘 얘기를 많이 하고 성전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는 왜 다 죽인다고 하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에는 번제단이 없었기 때문이고 번제단의 기능은 승천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하고 싶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관심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도 승천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름 아래에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데 오히려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을 고마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사업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데 진짜 임재하신다면 시내산에서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 기르고 싶어서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담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기도하면 오히려 임재하지 않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다행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식과 함께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재가 경험이 안 되는 이유는 승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만 바라고 우리 마음을 올려 보낼 생각을 죽어도 못합니다.
신학에서도 임마누엘이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고 종말론적 승천은 섹션에 다 있지만,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승천해야 하는 언급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급되는 분량만큼 언급이 돼야 하는데 너무나 희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론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느끼십니까?
내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이 안 되려고 했다가 잘 되는 확률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오히려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 될 수 있으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셔 들여야 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될 때에 구름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혀 구름 위로 올라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다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구름 아래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내가 계속해서 죽으며 마음이 승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성령님 중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면 구름 아래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구름 속에 산

책’이라는 영화 속에서 떠돌이 초콜릿 장수가 구름 속의 산책을 위해서는 빅토리아와의 관계가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가려면 그곳에 있는 분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름 위로 올라 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같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동선을 따라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상응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름 아래에서 자녀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자식이 없는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구름 위에는 하나님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아버지를 좋아해서 그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서 마음이 구름 아래의 것들과 묶여 있는 관계가 죽지 않으면 승천의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동선을 따라 십자가에서 구름 아래 것에 대해서 죽고 구름 위로 승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공석에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승천해서 이 땅에 없을 때에 그 빈자리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성전에 임재하심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하여 구름 아래에 둔 마음이 비어질 수 있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법궤가 들어가자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는 이야기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하는데 그게 선민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자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제단인 십자가를 붙잡고 승천 준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서 내가 좋아해야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한 분만을 좋아해서, 그곳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늘 위가 좋사오니’라고 내 마음이 하늘 위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만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은 승천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랐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의 승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